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사
반행편집인 공영일
주간 이석우
편집 장김중석
인쇄인 김준배

서울캠퍼스(우: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1
☎(961)0095, (963)5849
FAX(962) 7718
수원캠퍼스(우:449-701)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1
☎(741)5701(교환:2056-2860)
직통 (0331)280-2056-2860
FAX (0331)281-6378

제1057호 〈주간〉 1994년 11월 21일 (월요일) THE UNIVERSITY WEEKLY (1955. 10. 27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 1964. 1. 등록번호 나-12) (1955년 5월 12일 창간) 【1】

이번주 총학생회장 투표

단대 학생회장 선거 대부분 마무리
산대 학생장선거 무효 공표

양캠퍼스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가 의대, 음대, 체대, 사대를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되었다.

서울캠퍼스 경우 선거를 끝낸 단대 중 법대, 한의대를 제외한 모든 단대가 단일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로 당선을 결정했다.

81.1%의 투표율을 보였던 법대의 경우, 정 승홍남(행정2)부 류지환(법학2)군이 2백44표를 득표하여 1백84표를 얻은 정 최성진(법학·2) 부 이규홍(행정2)군을 60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한의대는 정 장재혁(본1) 부 황지식(본1)군이 2백60표를 얻어 2백51표를 얻은 정 박준현(본1) 부 이승일(본1)군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한편 여학생회 선거도 치른 문리대에서는 박진영(국문2)양이 단독 출마하여 54.3%의 투표율에 찬성 87.4%, 반대 0.9%, 무효 0.3%로 당선됐다.

각 단대별 선거결과는 다음과 같다.(①정·부 당선자 ②총투표자수 ③찬성 ④반대 ⑤무효)

▲문리대 ①정 김종욱(사학3) 부 이상용(지리3) ②9백22명 ③37백82표 ④1백4표 ⑤31표 ▲정경대 ①정 최장윤(경제3) 부 김희영(신방3) ②4천65명 ③38백38표 ④1백91표 ⑤25표 ▲가정대 ①임보경(식영3) ②2백93명 ③2백77표 ④8표 ⑤8표 ▲약대 ①정 유태혁(약학2) 부 이주영(약학2) ②1백19명 ③1백9표 ④9표 ⑤1표

수원캠퍼스의 경우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가 모두 마무리됐다.

기호 2번 김수영(도예3) 후보의 자격 박탈로 윤여정(원예3)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치뤄진 산업대 학생회장 선거는 총유권자 7백66명중 5백67명이 투표해 74%의 투표율을 나타냈으며 2백64명이 반대표를 던져 무효가 되었다.

산업대를 제외한 각 단대 당선자는 다음과 같다.(①당선자 ②총유권자수 ③투표자수(투표율) ④찬성자 득표수(지지율) ⑤무효)

▲의대 ①이광수(중문3) ②8백43명 ③5백명(59%) ④4백13표(82.6%) ⑤1표 ▲사회대 ①유승렬(행정3) ②9백42명 ③6백76명(71.8%) ④1백66표(68.9%) ⑤11표 ▲자연대 ①이승수(화학2) ②9백2명 ③7백46명(82.7%) ④3백75표(50.3%) ⑤4표 ▲공대 ①정 이정훈(산공3) 부 민재기(전자2) ②2천2백6명 ③1천6백81명(76.2%) ④8백62표(51.2%) ⑤16표 ▲체육대 ①김중근(체육3) ②5백92명 ③4백48명(75.6%) ④392표(87.5%) ⑤16표

한편 양캠퍼스 총학생회 선거가 이번 주 중에 모두 마무리 된다.

투표일정을 살펴보면 수원캠퍼스의 경우 21일부터 23일까지 시흥간 투표가 진행되며 서울캠퍼스의 경우 오는 23일, 24일 양일간 투표가 실시된다. 중선관위는 단대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점을 우려하며 남은 선거에 있어 많은 학생들의 투표권 행사를 촉구하였다.

산업정보대학원 동문회 창립
초대회장에 조길웅씨

우리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최고 경영자과정 졸업생 총동문회가 지난 11일 수원 동서울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경희대학교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설립취지로 내세운 창립총회에서 임시의장에 송재규(제3기, 원우회 회장)씨를 임명, 회칙을 가결시키고 5명의 전형위원제를 통하여 동문회임원을 선출하였다.

초대회장에는 조길웅(제1기 원우회 회장)씨가 감사에는 홍선순(제2기 원우회 부회장)씨와 홍창선(제3기 원우회 운영위)씨가 선출되고 김원식(제2기 원우회 부회장) 수석 부회장 외에 4명의 부회장이 선출되었다.

수강희망 조사 실시

서울캠퍼스 수업과는 21일부터 23일까지 외학제일학과와 야간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의 1학년을 대상으로 내년도 1학년 학생들이 듣게 될 과목의 수강희망조사를 실시한다.

학생들은 학과사무실에서 배부하는 수강희망조사 안내책자를 참조하여 수강희망조사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2학기 교내장학금 22억

수원 작년대비 3천8백여만원 증가

우리학교는 94학년도 2학기에 총22억2천7백36만9백50원의 교내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13억4천4백73만1천6백50원이 2천1백50명에게 수혜되었다.(장학금명, 지급된 액수, 수혜인원 순) ROTC, 1백50만원, 5명 ▲경희가족, 8천1백75만6천1백원, 55명 ▲고시A, 3천8백69만7천75원, 30명 ▲고시B, 2천만원, 36명 ▲근로 4천8백45만원, 1백54명 ▲모범, 1억3천8백8만7백50원, 4백76명 ▲모범B쎄클, 6백만원, 30명 ▲미술실기, 2백만원, 4명 ▲밝은사회, 1억1천4백8만6천25원, 2백62명 ▲보훈, 7천1백94만8천6백50만원, 92명 ▲실기B, 60만원, 2명 ▲외국인학생, 4백3만3천5백원, 3명 ▲우수, 5억3천6백50만6천5백원, 8백2명 ▲우정, 1백76만4천9백50원, 2명 ▲음악실기, 4백50만원, 15명 ▲입시, 1억1천6백92만1백원, 73명 ▲체육실기, 1억5천7백88만7천원, 1백9명

수원캠퍼스의 경우는 장학금이 작년에 비해 3천8백39만3천5백80원이 증가한 8억8천2백62만9천3백원이 지급되었다.

▲총장, 2백76만7백50원, 2명 ▲우수(입시), 1천6백74만7천원, 11명 ▲경희가족, 9천2백60만2천5백원, 66명 ▲체육실기 2억4천9백98만4천원, 1백68명 ▲보훈, 4천8백76만9천3백75원, 65명 ▲우수, 1억9천6백57만6천원, 2백72명 ▲모범, 1억4천7백24만원, 6백25명 ▲근로, 3천10만원, 70명 ▲고시, 9백29만1천원, 18명 ▲밝은사회간부, 4천6백40만원, 1백13명 ▲밝은사회근로, 2천3백20만8천7백50원, 33명 ▲모범동아리, 6백만원, 30명 ▲학군단, 3백만원, 10명 ▲복지, 9백95만원, 53명

논문 게재한 교수에 연구비 지급
서울연구처 저명 학술지 목록집 작성 예정

서울캠퍼스 연구처는 저명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한 교수 5인에게 각각 1백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했다.

연구비 수혜교수는 SCI에 게재한 상진(물리학)교수, 박승빈(화학)교수, 황헌신(화학)교수, 이동호(의학)교수와 SSCI에 게재한 정해영(회계학)교수 등이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내년 3월30일까지 시행될 받는 이 연구비는 예술, 인문과학의 경우 AHCI에, 사회과학의 경우 SSCI에, 자연과학·의학계열의 경우 SCI에 게재된 논문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이외의 저명학술지의 경우는 학술연구운영위원회를 두어 심사한 후 지원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연구처는 이달말에 저명학술지 목록집을 작성하여 각교수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학생청원심의위 발족

학생청원심의위원회는 원장에 윤명선(법과대 법학)교수, 위원에 교원대표 김신구(약대 약학)교수, 안영수(문리대 영문)교수, 직원대표 박수일(총무과), 이석호(국제평화연구소), 학생대표 이상준(사학 4), 성병호(수학 3), 간사에 전임대(학생처 학생과장)로 구성되어졌다.

외국도서 전시·판매

수원캠퍼스 중앙도서관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중앙도서관 2층에서 외국도서를 전시, 판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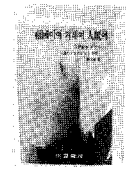
5개의 수입서적상들이 참여할 이번 행사에서는 도서구입 문제에 따른 한 방법으로 외국도서를 전공별, 국가별로 분류 전시하며, 각과 전공교수들은 구입희망하는 도서를 선정, 도서관측에 목록을 제출하면 된다.

위성안테나 설치공사

수원캠퍼스는 지난 10일부터 신문방송국 옥상에 위성안테나 설치공사를 시작했다.

12월4일 안테나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우선 공대에서 위성방송의 시청이 가능하게 되고 단계적으로 안테나의 단자 회선을 늘려 내년부터는 타단과 대에서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조영식 학원장 시집 발간
'조국이여 겨레여 인류여'



조영식학원장은 대우주의 기원과 심오한 인류역사를 조감한 대서사시 '하늘의 명상'이후 12년만에 조국광복 50주년에 즈음해 시집 '조국이여 겨레여 인류여-21세기를 밝히자'를 상재했다.

조학원장은 이 시집에서 오늘의 인류문명을 비판하고 미래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시집을 읽는 우리는 다시한번 자신을 생각하고 역사의 방향과 미래 세계를 그린다게 된다. 인류의 평화와 복지, 인간 낙원의 건설, 민족과 인류의 영원한 번영을 바라는 시인의 열원이 시집전체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시집은 천지창조, 고요한 아침의 나라, 보다 밝은 내일을 위하여, 평화의 새아침, 세계속의 한국, 문화세계의 창조 등 모두 6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의대학생회 자치공간 축소에 반발
시설보완·동아리 공간 마련 요구

대학평가인정제를 대비한 교수 연구실 확충에 따른 학생자치공간 축소방침에 학생들의 반발이 뒤따르고 있다.

의대 학생회는 21일 학교자치공간 축소방침 철폐와 의약관 도서관 건립을 요구하며 본관 항의방문을 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은 지난 18일 오후 5시부터 7시 40분까지 1천4백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학과 총회를 통해 결정되었다. 이에 앞서 이들은 18일오전 11시부터 3시간 30분 동안 학교측과 면담을 갖기도 했다.

의약관 학생자치공간은 1학기까지는 1층에 약대 학생회실, 2층과 3층 일부 공간에 치대 학생회실과 동아리실, 6층에 의대 학생회실 그리고 9층에 도서실이 자리잡고 있었다. 9층에 있던 도서실은 냉난방 시설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다 소장도서도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대부분의 동아리들이 따로 공간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학교측은 6월말 의약관 1층에 공동실험실을 만들면서 1층에 있던 약대학생회실을 6층 일부공간에 옮기고 그전에 6층에 있던 의대 동아리와 따로 공간이 없던 동아리들은 유명무실한 도서실을 없애고 9층으로 이전하기로 구두합의했다.

이 합의의 이행이 지연되자 학생측은 학교측이 예초의 약속과는 달리 학생자치실을 모두 9층으로 이전시키고 6층공간은 교수연구실로 변경할 계획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상호 입장과 의견 조정할 의지 없는가

교시탑

▼'아버지와 아들이 컴퓨터만으로 대화하는 사회' 컴퓨터의 혜택을 아낌없이 누리면서 살고 있는 이시대의 대화의 단절을 극명하게 표현한 문장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생각들을 토대로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해나간 결과, 사회 공동체적인 공통의 가치관만이 없는 개인의 아집을 관단의 근거로 삼은 일부 구성원들이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통신기술의 충분한 뒷받침 없이는 서로간의 대화의 단절과 갈등만을 양산해 나갈 뿐이다.

▼지난 93년 9월에 착공한 복지회관이 4차례의 지연 끝에 이번 주중으로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도 주변 주민들이 제기한 일조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권 손실등의 민원이 걸려있는 상황이기때문에 준공허가를 받아내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복지회관의 필요성이 절실한 결과, 서둘러서 입주하기 위한 음식입점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민원으로 인해 준공검사 조차 제대로 이루어질지 조차 불투명하다는 사실이다. 이상과 같은 일이 발생하게된 근거에는 당국의 지나친 형식주의나 일관성 없는 행정등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건설 주체인 학교당국과 이용자인 업자와 학생들간의 대화나 이해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에따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오해와 실무상의 번거로움을 더욱 증폭하는 결과만을 양산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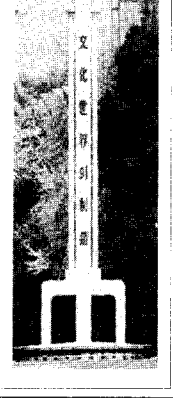
▼대화는 서로간의 입장과 의견을 조정하여 문제점을 극복하고 좀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건설한 경희의 발전을 바라더면 학생과 학교측은 모두 주체성을 갖고 서로가 타도의 대상이 아닌 일천의 동반자로서의 상호이해를 통해 명확한 상황판단과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상호 견제를 통한 억지발전이 아닌 상호 협력을 통한 진정한 발전을 유도해 나가야 할것이다. 〈김태석 기자〉

"21세기를 준비하는 경희의 힘찬 발걸음"

우리 경희인들은
개교 45주년을 맞이하며 남다른 감회에 젖습니다.
그것은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교시아래 온갖 어려움을 헤치고
불퇴전의 경희정신 하나만으로
반세기의 짧은 역사에도
오늘의 경희를 이룩해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경희를 가리켜 해외언론에서는
'극동 교육사의 기적'이라 극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21세기의 위대한 경희를 그리며
'제2의 웅비'를 준비할 것입니다.
개교 50주년이 되는 1999년까지
경희발전을 위해 100억원을 모금하고자 합니다.
경희가족 여러분!
하나의 벽돌이 되어 경희의 명예를 지킵시다.

경희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개교 50주년 기념 사업기금과 경희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강당 완공을 위한 모교 발전기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경희가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 010-01-0618-642
신탁은행 : 17301-2710-209
농 협 : 031-01-396711
우 체 국 : 012336-0025556
(예금주는 각 계좌별 공히 "경희대학교"입니다.)



◇명예고문
안호상 유치영 최태섭 이남종 방웅모 조동수 최정섭

◇고 문
장경필 안계영 심태녀 이병철 최두고 강상국 김정련 유홍구 이범희

◇회 장: 정동성

◇부 회 장
장홍표 김진태 강석희 송원섭 권오훈 김재녀 김영미 김창래 김상수 김순관 김여라 김정 송 김동식 김덕자 김정일 김만중 김병기